

“달마야 족구하자...공처럼 둥글게 살자”

11월9일 영천 은해사 족구대회 열린 날

은해사 산문 열고 청통면 주민과 화합의 한마당 14개팀 참여, “운동하고 참배하고 신나요”

“하이팅! 나이스!”
“둥둥둥둥!”
11월 9일, 늦가을 정취를 한껏 뽐내던 팔공산 은해사에 북과 팽과리 소리, 사람들의 함성으로 시끌벅적하다. 대웅전 앞 마당에 내걸린 네트를 중심으로 뾰얀 먼지를 일으키며 족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공과 함께 불쑥불쑥 솟구치는 길쭉한 다리와 머리가 예사롭지 않다.
“제2회 은해사 주자배 족구대회” 은해사 법당 옆 전각에는 방명록의 공금증을 풀어주듯 플래카드가 걸렸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은해사(주지 법타)가 청통면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해 산문을 열고 족구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참가한 팀은 모두 14개 팀. 청통면사 무소와 농협, 이장들의 모인인 이상상목회, 치일리 주민팀이 참가했고, 면내 기업체인 식품가공회사 푸드코, 보성공단, 은해사 옆 너거리의 청통부동산, 농민회, 청년회, 팔공진 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 팀도 동참했다.
사찰쪽에서는 은해사 본 말사 스님 팀과 승가대학원 스님 팀이 출전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입니다. 육체가 건강

해야 의식이 바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고 좋은 인연 지어 더불어 삽시다. 은해사도 청통면 소속이니 면민으로 함께 살기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개회식,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인사말에서 족구대회 취지를 설명하자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빨간 티셔츠 입고...두건 쓰고
오전 11시, 대진표를 확정하고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는 A코트 B코트로 나눠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8강을 놓고 오전에 6경기가 열리고, 오후에 4강, 준결승전, 결승전으로 이어졌다.
“오! 필승 코리아”를 생각나게 하는 빨간 티셔츠에 ‘까까머리’가 유난히 돋보인다. 은해사 본말사 스님들로 구성된 드림팀(?)이다.
법타 스님도 회색 승복 바지에 정열적인 빨간 티셔츠, 주황색 운동화에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에 출전했다.
“나도 면민이예요. 당연히 출전해야지. 필승!”

경기를 앞두고 법타 스님의 다짐이 예사롭지 않다. 예전의 나이로 무색케 하는 투혼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헤딩! 페인트 공격! 오버헤드킥(?)은 조금 무리지만 구르고 넘어지는 스님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우리는 이겨도 저도 큰일입니다. 이기면 스님이 족구만 했다고 할 테고, 지면 스님이 도둑이 없다고 할 테니 말입니다.”
경기시작 전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발휘하던 신홍사 범수 스님. 공이 넘어올 때마다 ‘수비는 나에게 맡기라’는 뜻 특유의 ‘브이’자로 팔을 뻗으며 공을 막고 나섰다.

불굴사 법정, 묘봉암 원범 스님도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청통부동산팀에 15:3, 15:4로 내리 두 세트를 내주며 패했다.
그러나 은해사의 진짜 드림팀은 따로 있었다. 오늘의 강력한 우승 후보, 승가대학원이다. 은해사 종무소팀을 가볍게 꺾고 8강에 진출한 대학원스님들, 머리에 두건까지 둘러쓰고 각오가 대단하다. 감독 진만 스님은 몸짓 손짓으로 작전지시에 바쁘다.

특히 상락 스님의 현란한 발동작은 소림무술을 방불케 한다. 강하게 공을 밀어붙일 듯 뛰어오르려는가 싶더니 슬쩍 밀어 넣기를 두세 번.
“에이~ 스님이 이래도 됩니까? 경고 안주나?” 연거푸 실점한 농민회 선수들은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가리키며 하소연하고, 경내는 웃음바다가 됐다.
1점을 다투며 아이스아슬 경기는 계속되고, 청

통한아름 풍물회의 전폭적인 응원지원에 힘입은 농민회가 이겼다.
“많이 아쉽지만 마실(마을)분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습니다. 주지스님, 어른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해사 승가대학원 총무 도산 스님의 말에 다른 스님들은 “우리 편은 하나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모두들 싫지 않은 표정들이다.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떤가.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만난 자리인 것을.

“이렇게 멋진 경기장은 처음”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뒹굴다보니 우승팀이 가려졌다. 주인공은 지난해 준우승한 보성공단팀. 오늘 우승을 위해 1년을 기다렸었다. 특히 지난해 다리 부상으로 출전 못한 하현수(36) 선수는 아내 최혜정(26) 아들 성희(2)군, 처제 최은정(26)씨까지 대동하고 나서 영예의 우승컵을 안았다.
남편을 응원하러 나온 혜정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 온갖 운동경기장을 잘 따라다니다서 데 이렇게 멋진 경기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딸 예빈(5)양을 유치원에 보내고 함께 못 온 계한(?)이라고 야단이다.
“집에서 이렇게 산문을 개방하니 정말 좋아요. 운동경기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게다가 부처님전에 참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최은정씨가 거들었다.
“족구 대회? 스님도 있고...달마야 놀자네, 달마야 놀자야. 스님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아들 내외와 은해사에 참배왔다는 서두수(64·안동 운안동)씨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펼쳐져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예찬론자가 됐다.
자율방범대장 신철(40)씨도 은해사 족구대회 팬이 됐다. 비록 경기초반에 쫓기지만 모든 면민이 모여 웃고 즐길 수 있어 좋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체면유지는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예 초장에 깨졌어요.”
오후 4시 시상식, 법타 스님이 시상 후 한 이 말이 하늘처럼 파란 웃음을 만들었다.
선수로 참가해 다리부상까지 당하면서 선전한 청통면 김해관 명장(56)은 은해사에 고마울 따름이다. 내년에는 동네별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김 명장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모든 면민들이 건강하고, 화합하고, 인위적, 자연적 재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늦가을 산사에 구르는 공을 따라 몸과 마음을 굴렸던 정진의 장을 나서는 면민들은 하나 같이 푸른 하늘을 닮은 부처님의 미소를 머금었다.
은해사는 족구대회 규모를 더 늘리고 나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다른 이벤트도 마련해 대중적으로 들여갈 생각이다.

영천/글=배서진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버키시지요” 스님이 상대편으로 공을 넣고 있다.

“소림족구?” “은해족구”만 할까. 은해사 승가대학원 스님의 스피치 모습.

경기가 끝난 후 악수를 나누는 마을주민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 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
장량신장가
의식사용용도
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하체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애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보살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성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성 온열복대

생명의 빛 생명의 氣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성 온열복대는 약물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하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설기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침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이랫배가 냉하는 분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 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